“봉사는 천직, 힘닿는 데까지 해야죠”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완주 위봉사 관음회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새벽이면 완주 위봉사 관음회장 박순자 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들썩인다. 쉬는 날임에도 새벽부터 음식준비로 분주한 이유는 바로 이들을 기다리는 군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다.

떡볶이며 쫄면, 김밥을 100인분씩 준비하는 보살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벌써 13년째 계속되는 진풍경이다. 위봉사 관음회는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북 임실 소재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 법당을 찾아 장병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들을 기다리는 장병들의 마음은 들뜨기 마련이다. 부대 식당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간식거리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음회 회원들은 부대를 방문하기 3일 전부터 떡볶이를 비롯해 짜장면, 비빔국수, 냉면, 토스트, 쫄면, 감자전, 떡국 등의 메뉴를 정해 장을 보고, 손수 음식을 준비해 장병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임실 제6탄약창 봉사활동을 마친 위봉사 관음회 회원들. 가운데가 박순자 회장, 박 회장 오른쪽이 이성강 포교사다.

위봉사 관음회는 17년 전인 1999년 창립됐다. 관음회 최초 창립 목적은 위봉사 선원을 비롯해 제방 선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해 승보공양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원 승보공양은 3년 전까지 계속되다 회원들이 점차 연로해지고 회원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봉사에 눈을 돌리게 됐다. 그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지속해오고 있는 봉사활동이 바로 호국장영사 군장병들을 위한 먹거리 봉사다. 이외에도 위봉사 신도회가 주관하고 있는 35사단 호국 충국사 법당 봉사활동과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도 회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

관음회가 호국 장영사 군장병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크리스마스 무렵이다. 다양한 기독교 행사로 소외된 불자장병들을 위해 이성강 포교사와 함께 장병 200명에게 떡국을 끓여주면서 장영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때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맛있게 먹는 장병들을 보며 관음회 회원들과 군포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한 것이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이어온 데는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의 후원 또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위봉사는 대중이 소비하는 모든 식재료를 자급자족하는 반농반선을 실천하는데, 관음회는 사찰 채마밭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채소는 위봉사 대중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송광사 정심원, 인근 복지원, 불교회관 경로식당에 후원되고 있다. 관음회원들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위봉사 법중 스님의 이 같은 실천하는 행에서 본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신행단체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관음회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보시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가족, 거사들도 함께 봉사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봉사현장에 갈 때마다 운전은 물론 설거지는 의례 거사들의 몫일 정도로 거사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사회에 회향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관음회 회원들. 한여름 무더위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법당을 찾는 병사들의 밝은 표정에서 큰 위안을 얻는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 회원들도 이제 점차 연로해지고 봉사활동에 힘이 부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힘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쉼 없이 장병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늘 다짐하는 관음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각국 문화장관, “사찰음식 넘버원”

광주 국제행사 만찬
증심사서 열려

남아시아국가 문화장관들이 한국불교 사찰음식에 매료됐다.

광주광역시는 8월 31일 개최한 ‘제2회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대표단 환영 만찬’을 증심사(주지 연광) 취백루서 실시했다. 행사에는 부탄 내무문화부 다와 지알트쉔 장관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여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만찬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광주를 찾아주신 것을 광주시민을 대신해 환영한다. 광주의 어머니산인 무등산과 천년고찰 증심사 등 광주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에 모시게 돼 영광이다”고 밝혔다.

부탄 다와지알트쉔 장관 답사에 이어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이라는 전통문화공간에서 천년 넘게 이어온 사찰의 음식문화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며 “사찰과 자연식 사찰음식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장에 나선 사찰음식은 6개의 코스로 △1코스-우유 연미죽과 연근, 더덕물김치 △2코스-우엉잡채, 오이가지 잣무침과 양송이 감자찜, 매실장아찌 △3코스-애호박편수, 느타리버섯강정, 우엉구이, 수삼샐러드 △4코스-두부스테이크와 어린잎 샐러드 △5코스-치자더덕밥외 배추김치, 미역국, 장아찌류, 나물 등이 제공됐다. 본 식사에 이어 후식으로 사과주머니, 양갱, 계절과일 등이 더해져 사찰음식의 풍미를 더했다.



제2회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이 증심사서 사찰음식 만찬을 즐기는 모습.

남아시아 대표단 모인 국제회의
다양한 사찰음식 코스 ‘눈길’
각국 대표단들 만족감 드러내

이날 대표단은 통역을 통해 연신 ‘사찰음식 아름답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각국 대표단 만찬과 올해 6월 열린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 공식만찬을 잇따라 사찰음식으로 대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증심사도 이런 추세에 맞춰 2014년 ‘빛고을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을 열고, 사찰음식 강좌와 지역민들에게 무료 체험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심곡사, 가을맞이 떡목음악회 개최

늦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시원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익산 미륵산 중턱에 자리 잡은 심곡사(주지 정안)는 8월 27일 심곡사 떡목공연장서 ‘으라차차 The We 가을이 오는 소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설암 · 화평 · 재안 · 제민 스님,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불자와 시민들이 공연장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개그맨 박범수 씨의 사회로 문을 연 음악회는 불교무형문화재 법우 스님의 승무로 불교문화의 진수를 선보였으며, 익산 국악원 임화영 명창이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또 가수 한혜진, 한승기, 이승훈 씨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박은주 씨가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했다.

심곡사 한주 화평 스님은 “떡목음악회에서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떨쳐내기 바란다”며 “이제는 가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추억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마음 속 등불을 밝혀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청소년 마음공부 수련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공부 수련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27일~28일 광주 대성여고 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인성계발을 위한 ‘2016 청소년 마음등불’ 수련회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조계종 포교원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인생의 과도기적 발달단계인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돕고 가치관 정립을 위해 불교적 인성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소중해’ ‘사랑해’ ‘행복해’ ‘감사해’ 반으로 나눠 지도교사와 함께 첫날 자기완성의 길, 음식 만들기, 특강(내면을 향하여), 조별발표, 공감천왕, 촛불명상에 이어 둘째 날 예불, 선체조, 특강(변화하는 나), 한마음 놀이, 소감문 작성 및 공유, 회향식을 체험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개최한 2016 마음등불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담소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고 있다.

혜월 스님은 “마음등불 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 등불을 밝혀, 인성을 계발하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위풍당당한 청소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을 피우는 나무’는 이 세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이며, 그 흐름 속에 나도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온 세상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실천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시 오고 싶은 선운골 만들자”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잔치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운골 공동체를 위한 화합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선운사 대중스님, 불학승가대학원 스님들과 상가번영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농협, 우체국, 선운산 유스호스텔, 석상마을 주민들은 8월 31일 선운사 생태공원서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이경신 군의회 부의장 등 지역 기관장, 마을주민 200여 명이 동참한 화합한마당은 푸짐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정담을 나누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면서 서로 존중하는 잔치가 됐다.

선운사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은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며 노래자랑, 족구, 윷놀이, 투호, 고리 던지기, 농구 자유투, 볼링 등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종목당 우승팀에게는 상품이 주어졌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추첨 경품이 제공됐다.


선운사 스님들이 선운골 화합한마당서 족구를 하고 있다.

올해로 7번째 맞은 선운골 화합한마당은 사찰과 주민들 간의 화합을 다져 승속이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 아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선운사를 찾는 탐방객에게 보다 나은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우 스님은 “선운골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오도록 하자”며 “선운사와 스님, 마을주민과 상가주민들이 상생하며 모두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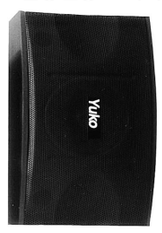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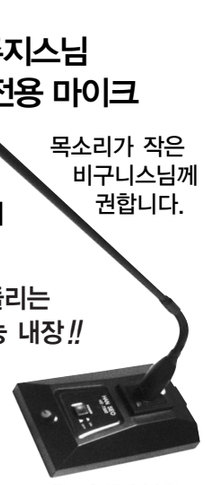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